

## 폴라니의 관점에서 본 마을 공동체의 경제구조 분석\*

권병욱\*\*

### Keywords

마을(village),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 실체적 경제(substantive economy), 호혜성(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살림살이(households)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a community-based economy. Especially, it examines the nine different villages which are farming, fishing, mountainous villages at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 this research, I used an interview with the villagers, participant observation of village-meeting and annual festival and literature survey on letters and a diary. Further I applied the approach of Karl Polanyi, who emphasized that livelihood of Man is not structuralized based on rational man and market mechanism, but on social structure that also plays a pivotal role which is known as subjectivism.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mmunity-based economy depends on natural resources, cultural elements as totem, religious factors, sacrificial rites, norm, and social factors like *Pumasi*, *Dure* and *Goji*. These elements impact broadly on livelihood of Man in a sense of household,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 But we have to investigate village economy with the leisure of them. And I hope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greatly to economy research on villages.

### 차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마을경제의 분석 |
| 2.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 | 5. 맺는말      |
| 3. 마을의 민속방법론       |             |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마을 연구단의 충남지역 9개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e-mail: kwon-b@hanmail.net

## 1. 들어가는 말

지난 세기말 아시아 지역을 급습했던 외환위기는 현 경제시스템의 이상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8년, 리먼 쇼크에 따른 미국 발 경제위기는 세계사적 파국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국의 징조는 이미 경제학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시장이론의 무결점성을 바탕으로 두고 토지와 화폐, 인간을 상품으로 간주해 온 신고전파 경제학의 위약한 논리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전경제학의 공리를 계승하면서 사회의 일부에 지나지 않던 경제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재편하고, 자기 조절적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는 경제 결정론 때문이라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장결정론을 경제적 환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모순을 지적해 왔다. 그 가운데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고, 조작적으로 구축된 경제학의 논리적 위약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인위적으로 구축된 경제논리 속에 오작동의 징후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폴라니의 관점을 토대로 경제와 사회와의 관련성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폴라니가 전시장사회의 경제를 근간으로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마련하였듯이, 마을의 경제구조를 탐색하여 폴라니적 경제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업은 불과 최근까지도 인간의 경제를 유인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폴라니의 경제관점을 살펴보고, 전시장사회의 경제를 규정하는 요소들을 검토한다. 또 그간 마을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관련 선행연구를 개괄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조사마을들의 민족지적 속성과 연구방법 그리고 마을의 경제활동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총 9개 마을의 속성을 이념형(Ideal Type)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마을의 경제를 구조화하는 요소들을 개괄하여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마을의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와 인간, 경제와 자연과의 상호작용방식 그리고 문화적 요소가 경제에 개입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고 오늘날 마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 2.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sup>1</sup>

### 2. 1. 플라니의 경제관점

플라니의 경제분석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제시하는 자기조절적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라스 노스(Douglass C. North 1977)가 자신의 논문의 부제를 “플라니의 도전(The Challenge of K. Polanyi)”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사회의 지배적인 사유도구로 간주되고 있는 시장경제학의 논리를 도전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J. E. Stiglitz 2001: vii) 역시, 자기조절적인 시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플라니적 접근의 당위성을 지지한다. 시장의 결함은 그 내부뿐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지대하여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두 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인간의 경제행위를 설명한다. 하나는 개인의 합리적인 이윤극대화 논리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를 사회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 한정하고 자체의 동력에 의해 작동한다고 보는 결정론이다. 이것은 가격 이외의 일체의 요소를 배제하고, 모든 상품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거래되며, 가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론으로 정식화되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의 서열화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시장이론이 전체 사회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플라니가 허구적 상품이라고 지적한 토지, 노동, 화폐를 상품화하여 시장에 복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플라니는 시장의 논리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 조절적인 시장을 독자화한 것 자체를 허구이자 근시안적인 전망(short-run perspective)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모든 사회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가지며, 경제질서는 그것을 포함하는 사회적 질서의 기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Polanyi 1957a: 72)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장논리는 줄곧 외면되었던 경제사와 사회인류학의 결합에 의해서 교정 가능하다(Polanyi 1957a: 45)고 기술한다. 경제사가 역사적인 접근에 기초하여 경제의 변동을 연구하고, 사회인류학이 미개사회를 토대로 사회적 관계와 구조 그리고 행위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1 플라니의 경제이해는 『대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1998), 『인간의 경제(Livelihood of Man)』, 논문 “제도화된 과정으로서 경제(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의 발견(Aristotle Discovers the Economy)”, C. M, Arensberg and W. H, Pearson (ed.),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The Free Press, Glencoe를 참고하였음.

이러한 입장에서 폴라니는 고전과 경제학자들의 전통에 따라,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 신고전과 경제학의 시장논리를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로 규정한 반면,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연과 사회와의 신진대사에 의존하고, 문화와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도화되는 경제를 실체적 경제(substantive economy)라고 정의한다. 전자가 합리적 인간의 선택에 의존하며 자기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다양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뿌리박혀 있는 경제를 주목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경제는 이익 추구라는 목적지향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이나 사회적 요청 혹은 사회적 자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신고전과 경제학이 거세해 버렸던 제도를 전면으로 소환함으로써 제도가 요구하는 행위원리를 통하여 경제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이다. 시장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비시장사회의 실체적 경제를 주목하고,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도화된 과정(Block 1994: 63)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인간의 경제는 경제적, 비경제적 제도에 뿌리박혀(embedded) 있으며 얽혀있다. 비경제적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절대적이다. 화폐제도나 도구 그리고 기계의 활용 가능성 자체가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처럼, 경제의 구조와 기능을 위해서 종교나 정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Comrad M. Arensberg and H. W. Pearson 1957: 250).

폴라니는 분명히 신고전과 경제학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들이 경제분석에서 제외했던 변수들을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타심이나 종교적 동질감, 심미적 판단, 관행, 혹은 명예나 체면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조장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삶이 추구되는 구조적 틀은 종족, 종교, 문화적 관행 등과 같이 희소자원의 경제화와는 무관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Polanyi 1957a).

폴라니에게서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형식적 경제학의 모델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F. Block 1994: 44). 전통사회의 경제는 교환이나 거래는 시장기구가 아니라, 호혜성과 재분배 그리고 살림살이가 조합된 총체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다.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 서유럽 봉건제의 종말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경제체제는 호혜, 재분배, 살림살이의 원리 혹은 세 축의 몇 가지 조합에 기초하여 조직되었다. 이 원리들은 그것들의 대칭성, 중심성, 자급자족의 패턴을 활용하여 형성된 사회조직의 도움으로 제도화되었다(Polanyi 1957a: 54-55).

스탠필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호혜성과 재분배에서 경제적 가치의 흐름은 명확하지 않고 종종 일방적이기도 하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타산적인 이윤동기로 움직이는 등가가치의 쌍방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교환과 날카롭게 대비된다(Stanfield 1997: 40).

호혜성(reciprocity)은 대칭적인 개인이나 집단들이 서로 상대하는 점 사이의 이동을 지시하며, 재분배(redistribution)가 특정 중심을 향하여 집중되었다가 돌아 나오는 점유의 이동을 나타내는 반면, 살림살이(households)는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생산을 의미한다. 증답(give and take)을 전제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호혜성은 대칭성이라는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재분배는 중심성이라는 제도에 의존하며, 살림살이는 자급자족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Polanyi 1957a: 47-53)는 것이다. 노스 역시, 호혜성과 재분배는 과거사회에서 지배적인 거래형태였음을 시인하고, 이러한 분배시스템은 경제적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사회적, 심리학적인 연구의 관점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부연한다(D. North 1977: 704).

폴라니의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환상’ 혹은 ‘미신’을 깨뜨리는 것이며 그 분쇄의 정당성을 전근대사회에 내재하는 인간의 경제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경제시스템은 단지 사회적 조직의 한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사회 전체 맥락에서 경제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폴라니의 논의는 블록(F. Block 2004)과 그라노벤테르(M. Granovetter 1985) 등에 의해서 정치화되었다. 경제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며, 정치와 종교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종속된다는 논의로 확장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통마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폴라니적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경제를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려고 한다.

## 2.2. 농어촌 마을 경제구조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

폴라니의 비판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구조가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구조의 영향을 제거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문화로서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포기하면서 시장경제 법칙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경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 연구에 천착한 샬린스(M. Sahlins)는 “석기시대의 경제학(2014)”에서, 비경제적이거나 경제외적인 조건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시적인 경제에서는

바로 경제조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샬린스 스스로 폴라니의 용어체계와 사회통합의 원리에 빚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실제적 경제를 인용한다. 동남아시아 농민의 경제적 현실을 지적한 스콧(J. Scott) 또한 원시사회를 어떤 의미에서 근대적 시장경제보다 더욱 인간적이며 동시에 비경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적 기아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분배장치가 마을 주민들의 최소생계보장을 위해 작동하며 이러한 관행이 근대시장경제와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한다. 이들의 연구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배제된 인간을 부각시키고 시장원리 이전에 존재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민경제를 도덕경제(moral economy)의 입장에서 연구한 쓰루타(鶴田格 2007)는 하이든(Hyden 1983)의 연구에 주목하여 농업생산이 생계를 위한 것으로 가족의 최저한의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며 간소한 농업기술에 기초하여 영성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업과 더불어 혈연, 친족관계, 공동체, 종교에 의한 친밀성에 의해 결합된 조직화된 집단의 지원,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연망, 사회규범에 기초하는 호혜적 행위, 집단내부에서의 자원이나 기회의 재분배가 가능한 정의 경제(economy of affection)를 분석하여 폴라니적 접근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의 경제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이나 인류학, 민속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히 지적되어왔다.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조경만(1988), 성태규(1998)의 연구, 민속학의 관점에서는 주장현(1990, 2006), 배영동(2001, 2004), 조정현(2015), 조승연(1999)이,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윤수종(1993)과 최우영(2006) 등이 마을의 경제에 주목한 연구성과들이다.

조경만(1998)은 “농업에 내재된 자연/인간관계의 고찰”에서 인간의 농업활동은 지식과 기술의 양자통합으로 구성되는 노동에 기초하여 자연에 개입, 조정하면서 체계적으로 전승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농업사에서 농기구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연에 개입하는 과정과, 수리관개의 진전에 따른 자연점유의 정교화, 작부체계의 구체화를 근간으로 토지생산력의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서구의 농학이 소개되고 화학비료의 투입에 따라 토지의 생산력 향상이 도모되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의 논의는 농촌마을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자연의 가치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서 유익하다.

한편 성태규(1998)는 “촌락사회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에서, 특정지역의 재지세력들이 해당 사회의 리더로서 경제자본에 따라 다른 구성원들과의 구별짓기를 가능케 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재지세력의 경제자본이 노동력의 동원에 미치는 영향, 특히 품앗이가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의 확장고정화와 관련성,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인정(人情)을 부각시키며 향도, 두레, 계와 같은 농민조직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했는지를 분석한다. 두레가 마을의 면대면 관계를 토대로 공동체적 결속과 규제를 수행하면서 노동생산이라는 목적을 지향한 반면, 계는 특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의도적인 조직이라고 규정한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두레나 계의 본질적인 목적은 먼저 농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열한 생산력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주안을 둔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두레가 성인 장정의 강제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공공재생산의 통로로서 기능한 반면, 계는 공동체의 결속과 강제보다는 사회문화와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이익을 고려하는 농민들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 유기적으로 발휘되었다는 것이다(성태규 1998: 266).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 강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상실하면서 공동체가 제공했던 최소한의 경제적 효과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사회적자본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조정현(2015)은 “마을공동체의 제의 관련 유무형 공유자원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에서 유무형의 공유자원 개념을 설정하고 마을문화로서 민속을 이해하려고 한다. 여기서 그는 공유자원을 기본적으로 농민의 생존을 위한 사회문화적 장치로 이해하며(조정현 2015: 360), 마을 스스로가 자치권을 행사하여 공유자원에 기초한 물질적 기반과 제도운용을 연동시켜 자원의 이용을 용인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구조를 생산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자원은 물질문화 혹은 경제적 변수임은 물론, 사회구조의 변화를 견인하는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배영동(2001)은 “농업생산형태의 변화에 따른 초연(初宴)의 소멸과 대체의례 등장”에서 농촌마을의 생산활동을 농사력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전통적인 생산활동을 결정하는 절기상의 기후와 토양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그에 기반한 농사활동양태를 구분한다. 아울러 촌락단위의 공동체적 노동과 그에 따른 초연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농촌마을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초연(初宴)이 환금작물의 등장과 따른 시설재배와 화학농업, 농기계의 도입에 의한 노동주기의 변화와 더불어 변용되어 갔다고 진술하며, 노동과 휴식, 절기와의 관련성과 그 재편성을 다루고 있다.

한편, 주장현 외(1990)는 민중조직과 민중회의 틀을 매개로 조선후기의 노동조직으로서 두레를 기술하고 있다. 당시 수도작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사회의 자치조직과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 제반사항을 결정해 가는 의사결정과정과, 공동노동조직이자 사회변혁의 주체로 두레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 후 주장현(2006)의 연구는 우리나라 두레와 품앗이, 고지 등에 대한 총결산을 시도한 귀중한 연구로 평가받지만, 그 연구는 전통적인 노동력 동원관행에 대한 연구로서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도, 마을 경제를 총체적으로 다룬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어서 품앗이는 가족노동이 모든 노동방식의 기초가 되었던 소농

경영의 현실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다른 사람의 노동력 차용, 교환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주강현 2006: 661)고 주장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사회경제구조를 설명하는 소중한 결과물들이지만, 본 연구의 의도를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각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의 목적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의 사회경제라는 단일한 주제를 위하여 민속이나 자연, 제의, 노동, 공유자원, 사회적 관계, 사회조직과 거기서 속출하는 행위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때 전통사회의 사회 경제를 보다 포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마을의 민속방법론<sup>2</sup>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충남대학교 마을 연구단에 의해 실시된 충남지역 9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마을을 살펴보면 당진군(합덕리), 보령시(원산도리), 홍성군(옹암리), 공주시(한천리), 계룡시(향한리), 금산군(불이리), 논산시(병사리), 서산시(초록리)로 행정구역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마을은 그 입지나 기능, 형태, 의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조사는 사회학, 경제학, 민속학 등 학제 간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장답사를 기초로 하였다. 일기류 서간문 등의 문헌수집, 동제나 마을회의에 대한 참여관찰, 다양한 전승을 진술한 중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면접조사에서 1차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러한 진술은 기록이나 문서를 통하여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회와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사회조직과 그 동원형태, 그리고 경제활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폴라니(1957a)가 앞서 지적한 제도와의 관련,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간과 그들이 구축한 자연, 사회적 관계, 규범, 풍속 등을 토대로 생업이 구체화되는 점을 주목하였다.

2 마을의 민족지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충남지역 9개 마을에 대한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인터뷰는 전통적인 농사관행이 유지된 197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983년도, 1984년도에 기록된 이OO 씨의 일상일기를 병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 마을의 전시장사회, 혹은 원시사회로 규정할 수 있을까는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언급하는 까닭은 폴라니의 논의를 확장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조사마을은 대부분 집촌(集村)적 성격이 강하며 생산기반에 따라 농촌평야마을(4), 산지마을(3), 포구마을(1), 도서마을(1)로 분류된다. <표 1>에서 보듯이, 평지에 입지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만, 도서나 포구마을은 어업, 농업, 상업을 겸하는 어주농종(漁主農從), 농주어종(農主漁從)이나 상주농종(商主農從)의 생업형태를 가진다.

특정 성씨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할 때, 동족마을의 특성이 현저한 곳은 두 개 마을(병사리, 불이리)이다. 7개 마을은 여러 성씨가 혼재하는 각성마을들이다. 동족마을이 양반들의 경제력이나 지배력을 바탕으로 하는 반촌의 성격이 강한 반면, 그 외에는 신분계층이 불분명한 민촌으로, 마을의 주민들은 노동을 분담하고 조직, 통제한다. 또 가부장권에 의한 가장의 권위 아래 가족성원의 노동이 조율되고, 동계나 대동회를 비롯한 자치조직에 의해 협동노동이 조직, 운용된다.

이러한 마을에 대하여 최재석(1988: 18-19)은 시공간에 의해 삶의 궤적이 형성되고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자족적 통일성을 이루는 생활권<sup>3</sup>이라고 정의하며, 김덕현(1989: 29)은 역사적 실체이며 상호부조와 협동노동,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과 조직을 가진 지역공동체라고 한다. 또 박서호와 박창홍(1993: 72)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민중적 모듬살이의 구체적 단위라고 한다. 즉, 마을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장치를 조직하여 모듬살이를 유지하고 사회화와 농업생산 그리고 일상을 영위하는 영역으로 작동해 왔다. 일상생활과 생업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서 기능한 것이다. 마을은 유사하면서도 독자성을 갖는 다양한 기층조직을 기반으로 삶을 담보해 왔다. 사람들은 그 조직의 일원으로 동질성을 획득하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삶을 도모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동회, 동계, 대동회 등으로 호명되는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공적영역을 구체화한다.<sup>4</sup> 주민들은 공적 영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토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공동의 이익을 갈무리하는 것이다.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각기 공동의 자산을 조성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구제활동과 공동제의 그리고 혼상례의 상호부조뿐 아니라, 두레와 같은 협동노동을 조직하여 마을의 부족한 노동력을 극복해 왔다.

3 본 연구에서 마을은 골이나 촌, 뜰 등의 집락으로 형성된 행정 구역으로서의 자연 부락을 지칭한다. 2~3개의 자연부락이 모여 하나의 마을(리)를 형성하기도 하고 5~6개의 하위집단이 모여 자연부락으로서의 리를 이루는 마을들이다. 마을에 따라서는 도시와 대비적으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도시성에 편입된 마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마을은 각각의 생산기반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산촌마을, 해안의 포구마을, 도서마을로 분류하였다.

4 마을에 따라 마을회의 명칭은 동계(향한리, 원산도리) 혹은 동중계(병사2리), 대동회(불이리, 동서리, 한천리) 또는 동회라고 호명되어 왔지만 행정적 동의와 임명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을회라고 통칭하고 있다.

두레는 포구마을이나 도서마을처럼 근해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업을 주된 생산활동으로 하는 평지와 산지마을에서는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오히려 품앗이와 같은 노동관행이 평지 및 도서, 포구마을 구분 없이 발견되는 보편적인 노동력 동원 관행으로 단기간 조직이 용이하며 결속과 해체가 자유로운 소규모 작업에서 빈번히 이용되었다.

한편, 마을의 공동제의는 일종의 신앙으로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믿거나 신이 강림한다고 믿는 신성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의례로서 마을구조의 재편에 따른 재구조화, 물질적 기반, 전승의 경로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마을의 입지나 지형지물에 따라 제의의 내용이나 형태가 다르다. 산촌의 공동제의는 산신제의 형태로 나타나며 도서마을과 해안마을에서는 당제나 풍어제로, 평지마을에서는 탐제, 각시바우제, 망태할아버지제, 추수감사제로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공동제의는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연대를 강화하며 경제적 풍요를 염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제의 외에도 세시풍속과 기제사도 마을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24절기에 기반한 농사력도 마을의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중요한 전승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마을은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동물(洞物)을 갖춰 공동으로 이용하고, 동답(洞畓), 동전(洞田) 등을 소유하여 극빈자나 고령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공동제의를 비롯한 행사에 활용해 왔다. 또 산림, 하천, 저수지, 근해어장등의 공유자원을 보유하여 생산활동을 유지해 왔다. 저수지와 하천이 관개의 향상성을 담보하여 농업생산을 지지하였으며, 산림을 통하여 목재와 화목, 시비, 보조식량을 획득할 수 있었다. 도서마을이나 포구마을의 근해어장은 마을의 중요한 생산활동의 기반으로 농지처럼 규격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개인화가 곤란하지만 실제로 생계의 근간을 형성하였다.<sup>5</sup>

5 이것들이 경제학의 공공재에 해당하며 활용에 있어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유자원이다.

표 1. 마을의 개괄

마을명	두레	품앗이	고지	자치 조직	시 장	동 계	입지	산업
합덕리	□	○	-	마을회 신도회	정기	추수감사제	평지	농업
병사리	□	○	□	마을회 동중계	정기	산신제	평지	농업
불이리	□	○	-	대동회 마을회	정기	탑제, 길상제	평지	농업
초록리	□	○	□	마을회	정기	각시바우제	평지	농업
한천리	□	○	□	대동회 마을회	정기	산신제	산간	농업 임업
용암리	-	○	-	대동회 마을회	정기	당제	포구	상업 농업
동서리	□	○	□	마을회 대동회	자체	망태할아버지제	산간	농업
향한리	□	○	□	마을회 송 계	정기	산신제	산간	농업 임업
원산도리	-	○	-	동 계 마을회	-	당제	도서	어업 농업

□ : 존재 후 소멸, ○ : 현재까지 존속, - : 확인되지 않음

잉여 생산물은 시장교환을 통하여 가계를 보충하거나 교육, 의료, 제의, 선물, 풍속과 오락 등을 재생산해 왔다. 시장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생산물의 교환을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술, 담배 등을 비롯한 기초적인 기호상품들이나 생필품을 시장을 통하여 조달하였다.

한편, 마을의 경제활동이 자연의 개량과 변형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생산성을 확대하거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왔다. 그것들은 자연에서 확보하는 풀, 짚, 나무, 돌을 주재료로 하며 적절하게 가공되거나 금속과 결합하여 노동력을 보조한 것이다.<sup>6</sup> 축력이나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단순하고 조잡한 재래식 도구가 마을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제한된 생산요소였다.

6 곡식을 털어내는 도리깨, 곡식을 찧고 가루를 만들던 확독, 절구, 맷돌이 있고 땅을 파거나 일구는 데 필요한 쟁이, 곡쟁이, 가래, 호미, 쇠스랑이 있으며 물꼬를 보는 데 쓰였던 중가래, 논과 밭을 가는 쟁기, 농작물의 수확에 이용하는 낫 탈곡기, 홀태, 도리깨 거름이나 퇴비를 담아내는 가마니, 삼태기, 망태기, 짐을 운반하는 지게, 논바닥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씨레 등이 중요한 농기구들이다.

#### 4. 마을경제의 분석

마을의 경제가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한 생산과 소비활동의 집합이라면 경제는 복합적인 생계지향적 행위이다. 가족의 입장에서 자조(self-help)를 관철해야 하며, 자조의 수준을 초월하면 경제는 사회 속으로 포섭된다. 사람들에게 자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질적 수준을 넘어 자녀들의 교육, 의료는 물론 가정의 제물, 오락, 외출, 교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한다. 마을의 경제는 가정의 자급자족과 더불어 마을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자원, 노동이나 현금, 현물의 동원까지를 포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척박하고 협소한 경작지로 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의 협력, 시장을 비롯한 문화와 자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경제는 중층적인 사회적 관계와 다양한 문화에 의해서 규정되며, 자연자원의 개량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조경만은 인간의 농업활동은 그 활동이 처해 있는 생태계의 전체계와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조경만 2006: 8). 즉, 관개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며, 산림의 보호와 소비를 목적으로 송계를 설계(設契)하거나 근해어장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어촌계를 조직하여 자연에 개입하는 것이다. 농기구 역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창조성과 심미성이 가세하여 개량되고 응용되면서 마을의 경제를 도모해 온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을의 공동제의와 개별가정의 기제사도 주관하는 주체는 다르지만 마을의 경제를 규정한다.<sup>7</sup> 생존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안녕이 경제상황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제의는 강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친족의 제사나 개별가정의 기제사는 제물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이 종손이나 장손에게 모아져 제례가 끝난 후에 모든 참여자들이 공동식사를 하며 봉송이란 이름하에 각자에게 재분배된다. 특히, 동족마을의 문중은 위토와 시답을 조성하여 제실의 관리와 제사의 물질적 기반으로 하며, 종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종인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인하는 힘이다. 이러한 사실은 플라니가 지적하는 비경제적 제도, 즉 친족이나 가족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생산물은 저장되었다가 필요에 따라 인출되어 소비되며 저장이 곤란하거나 선도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채소나 과일 등의 잉여 생산물은 시장을 통하여 교환된다.<sup>8</sup> 농촌마을

7 도서마을에 해당하는 원산도리의 경우 당제와 풍어제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실시되며, 그 외 불이리의 탐제, 동서리의 고목나무제와 망태할아버지제, 웅암리의 당제(당신제), 함덕리의 추수감사제, 향한리와 한천리, 병사리의 산신제, 초록리의 각시바우제 등이 있다. 이들은 제의의 대상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화, 풍요를 기원한다.

의 경우 고추나 열무, 콩, 들깨 혹은 참외나 오이 등이 시장에서 교환되며, 산촌에서는 밤, 감, 버섯, 고랭지 알타리, 감자 등을 매매하고 어촌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의 교환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시장교환을 통해서 농약이나 비료, 비닐 등의 농자재와 어구, 술, 담배 등의 기호품, 추석이나 설의 제물, 교육비나 도시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교제비등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시장이 미분화한 상태에서 시장교환은 제한적이고 부차적이지만 살림살이에 있어서 중요한 장치이다.

마을 인근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시장체계의 맹아가 발아하고 있지만, 교환은 주로 정기시장이나 지역의 상설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정기시장은 장육을 중심으로 생계형 상점을 운영하는 고정상인들과 뒤섞여 2·7장, 3·8장, 4·9장 등의 형식으로 열린다. 정기시장에서는 의식주를 보장하는 생필품들이 거래되며, 농산물 외에도 옹기나 질그릇, 무쇠술, 특용작물들이 교환된다. 시장시스템이 자급자족적 방식을 대체할 때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면 여전히 가격이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고 합리적인 인간 본성의 지배력도 미약한 상태이다. 플라니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존의 동기 대신에 이익의 동기로 대체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가 화폐거래로 바뀌어야 하고 이어서 교환의 매개체가 모든 경제적 삶의 부분까지 침투해야 한다. 모든 소득이 무언가의 판매로부터 나와야 하며, 개인소득의 실제적 원천이 무엇이든 판매로부터 결과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Polanyi 1957a: 41).

여전히 경제학적 시장시스템은 침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교환이 조잡한 정기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교환은 빈번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 잦은 거래에 따라 형성된 교환 당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거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빈번한 거래는 상호 간에 단골이라고 하는 관계특성을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외상이나 흥정, 덤(우수)이라는 거래방식을 구조화한다. 그 외에도 시장은 마을의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되는 시발점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집회가 열리는 대중집회소로서 기능하고(주강현 1988: 191), 때로는 유흥과 오락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마을의 살림살이는 개별가정을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 교육, 제사봉양 그리고 오락과 교

8 이OO의『일기』 1984년 9월 15일과 26일 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무우 한 접을 시매했다. 접당 13500원을 받았다, 밤 한 말 8.4kg을 시매했다 5000원.” “오전 감(생시)을 따다. 양일간 수확량 생시 15접(금액 57000원)에 팔았다.”

제를 비롯한 의식주 전반과 관련된다. 따라서 살림살이는 지역적 차이나 신분적, 서열적 특성을 반영한다. 신분에 따라 제사의 진설이 다르고 의복이 달랐으며, 교육이나 통혼을 강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살림살이는 가부장권에 기반하여 가장이 주도하였다.

살림살이의 주도권은 관행적으로 가장에게 집중되는 대신, 반대급부로 가장은 식구들의 의식주는 물론 생활전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생산물의 재배와 수확을 지휘하며, 노동력을 보충하고 소득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수확물은 가장에게 집중되었다가 처분되어 가족들에게 재배분된다. 재산의 상속권도 가장에게 귀속되며 토지와 가축, 생활용품, 가옥 등을 자녀들에게 분배한다. 마을 경제 자체가 협소한 경작지와 불량한 토질, 강우량이나 일조량, 기후 등의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가장의 지휘에 의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폴라니(1957a)가 주장하는 개별가정의 자급자족의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며 스스로의 사용을 위한 생산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급자족의 원리를 유인하는 장치가 시장이다. 비록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각 가정의 경제활동이 가장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가족 구성원의 시장 관련성은 극히 제한적이며 폴라니의 재분배적 원리에 지배받는다. 폴라니가 주장하는 비경제사회에서의 경제원리는 노동의 자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편, 노동은 대체로 가족노동이나 축력에 의존하며 부족한 노동력이 호혜성에 기반하는 다양한 사회적 연망에 의해 보충된다. 농촌마을이나 어촌 마을의 경우 현금획득을 목적으로 품삯이라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임노동도 성행하면서, 소작농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경제적 합리성 관념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극히 미약한 수준에 불과했다.

마을경제에서 호혜성의 원리는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다. 호혜성의 대항논리는 물질적인가 비물질적인가를 기반으로 하며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생일을 비롯한 다양한 축하연에서 당사자는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와 주류를 대접하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와 같은 선물로 응답한다.<sup>9</sup> 혼례나 상례도 마찬가지다. 대사의 당사자가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대신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답하고, 일부는 음식만들기,

9 이 점에 대해서 『일기』 1984년 2월 27일 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OO 씨 모친 생일에 갔었다. 몇잔의 술을 마시고 친지(親知)들과 놀다 왔다. 노인에게 거북선 한갑을 선사하였다.” “회의 참석 환로에 정OO 씨 댁에서 친지들과 탁주 네 되를 나누어 먹었다. 박OO가 술을 빚으므로 나는 돼지고기(豚肉)을 한 근 사서 먹었다.” 2월 24일에도 “이OO의 생일이다. 오전에는 전 동민이 모여 도로를 보수하였다. 오후에 OO집에서 친목회원 남녀가 모여 생일을 축하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안경을 선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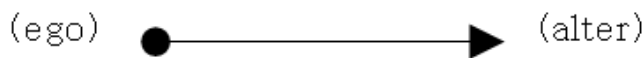
재료운반, 손님접대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노동력의 동원이라는 점으로 특정하면 호혜성의 원리는 품앗이<sup>10</sup>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품앗이는 마을의 사정과 작업의 성격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대칭성에 기반하여 제초작업을 비롯하여 가옥이나 지붕, 담장의 수리, 보(洑)와 제방의 정비 등 일상적인 경험세계에서 흔히 행해진다. 이것들이 노동력의 교환을 위한 전형적인 품앗이의 예에 해당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관점은 품앗이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품앗이는 정서적인 증답에서도 관찰되며 대칭성이라는 일정한 패턴으로 존재한다 (Polanyi 1957: 49) <그림 1>. 그러나 대칭성이 반드시 균등하거나 균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온정과 배려, 신뢰 등의 추상적인 가치가 그 원리를 보완한다. 참여자들은 서로를 감시하지 않으며 기회주의적 행동을 처벌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 노동행위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답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친한 사이, 허물없는 사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체면이나 명예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보충하는 성찰적 실천을 전제로 한다. 서로는 친소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갖는 것이다.

품앗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들 사이의 단순한 노동관행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품이 남성의 품으로 대체되며, 전답의 노동이 제방의 축조를 대신하기도 한다. 집을 짓거나 담을 축조하는 기술 등 특수한 자원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농작업의 품에 대하여 특수자원으로 앓이(答)를 하기도 한다. 특히 축력으로 이용되는 소를 소유한 사람은 쇠품을 팔 경우, 성인남자의 2일 혹은 3일의 품으로 답하는 등 특수자원도 중요한 품앗이의 대칭성을 전제로 한다.

그림 1. 품앗이의 대칭성



10 『일기』에서 품앗이의 사례에 대한 기록은 빈번히 등장하며 표로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품앗이 노동은 모든 마을에서 관찰되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1984년 3월 28일 분에는 “갑자년 처음으로 품앗이 일을 하였다. 김영O, 김영△ 2人을 얻어 묘판, 논둑을 보수하였다(今年初 金永O, 김영△ 來 (品).” 으로, 3월 30일에는, “농지 보수를 하였다. 김영O 김창□ 2人을 얻어 지표 석축을 하였다. 김영O 합2來, 김창□ 1來.”, 5월 2일에는 “김영O 씨에 논갈이를 하였다. 품앗이로 일을 갔다(品 1去).” 고 기록하고 있다.

고지는 농촌마을에 행해지던 임노동 관행이었다. 고지 주인과 청부인의 대칭관계에 서경작을 대행시키는 것이다. 청부인들이 춘궁기에 곡식이나 금전을 대부받는 대신, 모심기, 제초, 수확, 탈곡과정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지면적에 따라 일대일 혹은 일대다(多)의 대응관계로 시행된다. 고지주인이 제공하는 현물이나 현금을 통하여 춘궁기의 빈곤을 극복하고, 농번기에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으로 답한다는 점에서는 대칭적인 호혜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는 거래적인 교환관계이자 특수자원을 소유한 주인과 청부인 사이의 권한 관계를 기초로 하는 수직적 관행으로 이해된다. 청부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고지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강요된 특성에 의존한다. 기존의 고지연구가 양자 사이의 자원소유의 불평등이나 노동력과 현물 사이의 불균형을 비판해 온 것은 이러한 고지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고지는 대칭성을 지지가치로 인정하면서도 양자 사이의 호혜적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보릿고개라는 시련기에 미리 쌀이나 곡식을 조달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농번기에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고지가 증답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그 증답의 관계가 불평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고지를 착취적 임노동관계로 이해했던 것이 정설이다.

그림 2. 고지의 대칭성



품앗이와 같은 호혜적 관행은 사회적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 마을 내의 친한 사이에서 조직되지만, 때로는 특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마을을 벗어난 외부의 연망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한 사이라는 관계속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고지는 대체로 마을의 경계를 벗어난 외부성에 의존한다. 마을 내부의 농지가 협소하거나 내부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로부터 보충하기도 하지만, 불평등 관계에 따른 갈등이나 마을 내에서의 위화감을 피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고지에서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이이지만 반드시 친밀한 관계일 필요는 없는 속성을 가진다.



마을의 경제에 대한 이상의 논의에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나 사회적 경계(social boundary)에 대한 관찰은 플라니의 주장을 더 풍요롭게 보완하는 중요한 사실들이다.

마을경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재분배이다. 재분배는 플라니가 지적하는 것처럼 집단의 우두머리 등 탁월한 인물을 매개로 저장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뚜렷하게 작동한다(Polanyi 1957a: 51). 재분배는 넓게는 자치조직인 마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마을 내부의 다양한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된다.

마을회가 이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장은 재분배의 구심이다. 반면, 하부조직에서의 재분배는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리더가 중심이 된다. 공동체의를 비롯하여 체육대회, 환경정비, 구휼활동 등의 공동사역이 이장에 의한 재분배 영역이다. 체육대회나 동제 등의 공동행사 시에 주민들은 이장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찬조하고, 출향인들은 발전기금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통하여 마을에 동참한다. 이 때 이장에게 수납된 찬조금이나 기부금은 동물(洞物)의 구입이나 공동작업 시에 경품이나 음식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또 화재나 홍수 등의 재난을 당한 주민이나 빈곤층,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하여 십시일반의 현물이나 현금을 징발하여 해당자들에게 재분배한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사회의 두레는 재분배의 원리를 잘 밝히고 있다.<sup>11</sup> 최우영은 두레를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고 두레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어 공동노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최우영 2006: 256). 두레는 작업을 총괄하는 행수를 정점으로 도감, 수총각, 회계담당인 유사를 임명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행수는 마을의 장로들과 협의하여 두레 날짜를 조정하고 작업의 규모에 따라 참가인원과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두레노동이 투입된 가정은 작업면적이나 참가자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그 임금은 행수에게 징수되어 보관되었다가 마지막 논매기가 끝나는 백중 무렵의 공동연회(호미씻기)에서 재분배되는 것이다.

하부조직에 의한 재분배는 상부조직으로서 마을회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계(契)나 철렵, 추렴에 의한 도리기 등은 조직의 자율적인 규정에 따라 재분배를 실천하는 것이다.<sup>12</sup> 계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친목계를 비롯하여 여행 등의 특정 목적계, 식리

11 두레는 농촌마을에서 존재하다가 대부분이 농약이나 농기계가 도입되던 1970년대 초반에 소멸되었다고 한다. 화폐경제가 확산되면서 공동체적 연결망의 성격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 갔으며 점차 가족단위의 계약적 결사적 성격으로 변해 갔다고 볼 수 있다(최우영 2006: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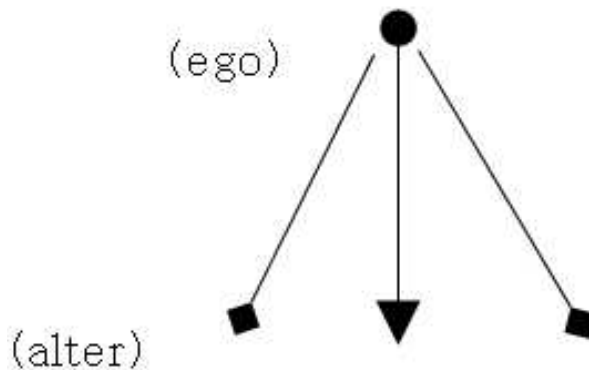
12 『일기』에서 철렵이나 도리기의 관행을 기록하고 있다. 1984년 6월 22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감자밭을 매는데 윤OO, 김OO가 와서 우리 개를 도리기하기로 했다. 정육24근 28,000원에 하였다. 4명이 각자 出, 소주 4홉 2병, 2홉 1병, 계 10홉을 먹고 대추나무정에 가서 윤OO, 김OO이 술을 벗어 마시고 늦게 왔다. 내가 소주 4홉을 가져와 윤OO와 갖치 마시었다.”

나 금품의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계, 상사 시의 장례절차를 협력하기 위한 상계, 친족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화수계 등으로 다양하다. 각 구성원은 복수의 계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계원이 납부하는 일정 금액의 계금이나 현물이 재정을 충당하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며 술과 음식을 나누는 재분배에 활용된다.

철럼이나 도리기의 추렴행위<sup>13</sup> 역시, 진행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행사 당일 음식이나 선물로 함께 재분배된다. 이처럼 하부조직에 의한 재분배제도는 구성원에 한해서만 정수와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에 속하는 모든 성원은 수평적 지위에 있으며 단지 분배 방식이 수직적인 것이다. 그 수직적 시스템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중심 인물은 교대로 선출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구성원은 그 지휘에 복종하는 것이다. 재분배는 <그림 3>처럼 일반적으로 수직적 구조를 가진다.

마을의 자치조직에 의한 재분배는 마을의 경계를 초월하여 외부로 확대되지 않으며, 내 집단의 경계를 고수한다. 집단 내에서 징발된 재화와 서비스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분배되는 폐쇄성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그림 3. 재분배의 중심성



폴라니의 연구에서 재분배는 수렵이나 전쟁 등에 기반한 우두머리에 의한 재분배의 원리로 설명되고 있지만 마을에서 재분배는 다양한 층위에서 관찰된다. 또 재분배가 호혜성과는 달리 내집단으로 제한되는 내부성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상으로 마을의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전통사회의 유제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들이 마을의 경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가격이 경제활동을

13 『일기』에서 1984년 5월 4일의 철럼에 대한 기록이다. “나는 조반 후 이반장과 개발위원들이 춘계 철럼을 하였다. 개 한 마리, 닭 1마리, 소주 3병, 탁주 1되. 이장 2만원 외 각 1,200씩 출하였다.”

결정짓는다는 신고전과 경제학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도 근대화의 진행과 더불어 생산성, 효율성, 합리성, 능률과 같은 이식된 가치에 의해 마을의 관습과 관행, 다양한 연망들이 변질되어 갔으며, 1차적 인간관계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2차적 인간관계로 변해가면서 인간의 경제를 유인했던 전통사회의 유제들도 소멸되어 갔다.

## 5. 맺는말

이상은 충남지역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장사회로 유입되는 이행과정의 험간에서 실제 조사를 토대로 마을의 경제구조를 살펴보았다. 자연과 인간, 다양한 사회적 관계, 그 관계에서 발현하는 조직과 행위들이 마을경제에 반영되는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이는 마을의 경제구조를 실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을을 단위로 하는 경제활동은 주류경제학의 전제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오히려 경제학에서 제외시켰던 다양한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플라니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경제는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망, 규범, 사회적 관습과 같은 공동체의 운용원리에 총체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이윤논리나 시장원리가 작동할 여지는 없다. 경제논리 대신에 생계논리와 정, 배려 등을 근간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속성에 의해 주도되며, 자연의 개량과 조작과정이 마을경제를 구체화한다. 특히 마을경제에서 생산은 농지의 규모나 토질을 고려하는 합리적 논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요소가 제한적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한 선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마을의 경제는 플라니의 실체적 경제에 의해 자연과 신진대사를 해야 하는 필연성에 기반한다. 나아가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제요인들의 결합에 의해 살림살이를 조직하고 물질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스탠필드가 플라니의 관점을 재해석하고 강조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경제생활을 위해 자연과 그의 동료에게 분명히 의존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연환경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 덕택에 살아남는다. 이 과정이 경제이다(Stanfield 1996: 57-58)..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니의 비시장사회에 대한 경제분석은 타당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살림살이에 대한 구체성이나 실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호혜성,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관계나 위치, 평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폴라니의 논의를 명확히 함은 물론 그 논의를 더 풍요롭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본 조경만(1998), 조정현(2015)의 연구는 폴라니의 실제적 경제에 잘 부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총체성의 관점에서 마을의 경제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주도되어 호혜성을 지지가치로 하는 품앗이는 생산을 포함하는 마을의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며, 정서, 물질, 특수자원으로서의 기술, 노동의 수준에서 작동하여 경제를 유인하고 서로 중층적으로 얽혀 마을을 통합하며 상호관계를 강화해 왔다. 또 전 시장사회에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던 두레는 중심성을 지지가치로 하며 재분배적 경제양상을 나타내면서 인간의 경제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례도 아직은 마을경제를 규정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장현(2006)과 배영동(2004)의 선행연구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마을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시장중심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러한 관행이 유인했던 경제적 의미의 변화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특히 자연의 개량과 개조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들도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마을의 경제를 보조해 왔던 다양한 도구들도 현대식 기계들로 대체되면서 그 기반을 상실하였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시장의 논리가 확산되고 상설시장이 정기시장을 대체하면서, 시장시스템의 확장에 따라 친밀성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도 이기적 이윤추구에 기초한 2차적 인간관계로 변질되고, 협동노동관행은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적 노동력 동원으로 변용되었다. 경쟁의 논리가 주도하는 사회적 생활양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와 협력보다도 개인의 이윤이 핵심적인 가치로 작동하는 사회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사회로 진입한 마을의 경제를 분석하여 노동의 동원 방식이나 현대식 기계의 도입, 자연자원 활용방식의 변화, 시장사회의 침투에 따른 교환방식의 변화등을 검토함으로써 완결적인 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무엇보다 마을성, 마을의 공동체성의 복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을의 전통적인 유제들 속에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품앗이나 두레, 울력과 같은 상호부조와 협력의 관행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장의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논리의 침투와 확장에 따라 개인의 이윤동기에 경도되고 경쟁의 논리에 따라 사라진 협력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도덕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십시일반의 구휼관행에서 비공식적인 복지시스템과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모든 사회적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정부와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는 우리 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

를 마을 공동체의 관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율적인 자치조직의 운영원리에서 공공성의 원형을 발견하고 자치제의 논리를 구체화해야 한다. 마을의 자치조직은 모두에게 열린 장으로, 모두가 참여해 의사소통과 실천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마을의 대사를 결정하고 공익을 추구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창조성과 심미성, 편리성이 조화를 이룬 농기구에서 화석 에너지 중심적인 현재를 성찰하고 생태학적인 에너지 사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덕현. 1989. “최근 한국촌락의 경관변화에 대한 이해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경남문화연구』 제10권. pp. 13-35.
- 김성훈. 2006. 『한국의 정기시장 - 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일철. 1965. 『농촌의 사회적 협동과 이익집단』. 한국농촌사회학회(편) 민조사.
- 김주희. 1992. 『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집문당.
- 박서호, 박창홍. 1993. “마을연구방법론 정립에 관한 연구 - 마을의 개념정립 및 인식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5권 제2호. pp. 71-90.
- 배영동. 2001. “농업의 생산형태 변화에 따른 초연의 소멸과 대체의레등장.” 『역사민속학』 제12호. pp. 125-151.
- 배영동. 2004. “조선후기 두레로 본 농업생산의 주체.” 『실천민속학연구』 제6호. pp. 271-293.
- 성태규. 1998. “촌락사회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고문화』 52집. pp. 275-295.
- 윤수중. 1993. “농업생산조직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pp. 243-282.
- 이만갑. 1981. 『한국농촌사회연구』. 다락원.
- 정병걸. 1967. “한국의 농업노동에 관한 일 고찰.” 『경제론집』 제6권 제2호.
- 조경만. 1998. “농업에 내재된 자연/인간관계의 고찰.” 『역사민속학』 제2집. pp. 7-31.
- 조승연. 1999. “일제하 농민의 농업생산형태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의 한 촌락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제18호. pp. 145-173.
- 조정현. 2015. “마을공동체 제의 관련 유무형 공유자원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비교민속학』 제567집. pp. 347-380.
- 주강현. 2006. 『농민의 역사 두레』. 들녘.
- 주강현, 고광민, 정승모. 1990. 『역사속의 민중과 민속』. 이론과 실천.
- 주강현. 2005. “물질 및 생산품습연구와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20호. pp. 315-343.
- 최우영. 2006.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전통사회의 농민조직 - 향도, 두레, 계를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 봄호, 제29권 제1호. pp. 239-274.
- 최재석. 1988.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 홍동식. 1988. “농업의 상업화와 농촌사회변동: 부락의 공동유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22호. pp. 91-108.
- A. Gouldner.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5, No. 2, pp. 161-178.
- D. C. North. 1977. “Market and Other Allocation Systems in History: The Challenge of Karl Polanyi”,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bol. 6, No. 3, pp. 703-716.
- F. Block. 1990. *Postindustrial possibilities: A critique of economic discourse*. Univ of California Press. 최은봉(역). 『포스트산업사회: 경제사회학적 담론』. 1994. 법문사.
- F. Block. 2004. “Introduction to The Great Transformation by Karl Polanyi.” *The Competitiv ne-ss of Nations in Global Knowledge Based Economy*. AAP Homepage.

- F. Block and M. R. Somers. 1984. "Beyond the Economic Fallacy: The holistic social science of Karl Polanyi." in T. K Skocpol (ed.).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pp. 47-84.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 Dalton. 1961. "Economic Theory and Primitive Society." *American Anthropologist*. vol. 63, no. 1, pp. 1-25.
- Karl, Polanyi. 1957a.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Paperback, Beacon Press.
- Karl, Polanyi. 1957b.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C. M., Arensberg and W. H., Pearson (ed.).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The Free Press, Glencoe.
- Karl, Polanyi. 1957c. "Aristotle Discovers the Economy.", C. M., Arensberg and W. H., Pearson (ed.),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The Free Press, Glencoe.
- M. Sahlins. 1972. *Stone Age Economics*, NewYork, 박충환(역). 『석기시대의 경제학 -인간의 경제를 향한 인류학적 상상력-.』 2014. 한울아카데미.
- J. Scott.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김춘동(역).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2004. 대우학술총서 565.
- J. E. Stiglitz. 2001. *Forward, in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pp. vii-xvii. Beacon Press.
- J. R. Stanfield. 1986. *The Economic Thought of Karl Polanyi: Lives and Livelihood*. London Macmillan. 원용찬(역). 『칼플라니의 경제사상.』 1996. 한울아카데미.
- 鶴田格. 2007. "モラルエコノミ論からみたアフリカ農民經濟 -アフリカと東南アジアをめぐる農民論比較のこころみ-." 『アフリカ研究』 70. pp. 51-62.

원고 접수일: 2016년 8월 17일

원고 심사일: 2016년 8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7년 3월 16일